

카자흐서 별이 된 ‘디아스포라 정추’의 삶과 음악 조명

광주 태생의 카자흐스탄 망명음악가 정추(1923~2013)의 삶과 음악 세계를 실증적으로 접근한 ‘카자흐스탄 망명음악가 정추 평전’(도서출판 작가 刊)이 최근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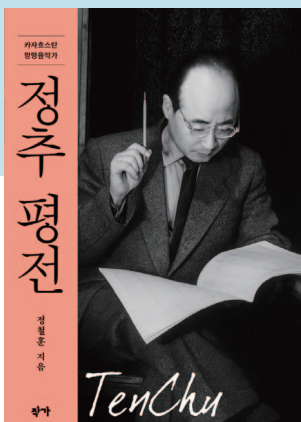
이번 평전은 시인이자 전기 작가인 정추의 조카 정철훈(66)의 필생의 역작으로, 총 8부 68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원고지 3500장 분량에 이를만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번 평전에 앞서 선친인 동요작곡가 ‘정근 집집’(전3권·작가출판사)과 백부(伯父)를 다룬 ‘북한영화의 대부 정준채 평전’(선인출판사)을 2022년에 동시 출간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평전은 남과 북, 그리고 카자흐스탄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선대(先代) 예술가 3형제의 삶과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오랜 숙원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저자에게 의미를 더한다.

정추는 파란만장한 이주의 삶을 살면서도 높은 음악적 성취를 보여줬다. 정추는 90년 생애 중 22년은 남한 공민, 13년은 북한 공민, 17년은 무국적자, 16년은 소련 공민, 22년은 카자흐스탄 공민으로 각각 떠도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 국적이 네 번이나 바뀌었으며, 냉전의 20세기 현대사가 낳은 비극적인 디아스포라의 형상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추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교향시 ‘극적 조곡’(1972)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공동체의 디아

조카 정철훈, 망명음악가 ‘정추 평전’ 출간 총 8부 68개 항목 구성…원고지 3500장 분량 타계에 이르는 시간의 흐름 촘촘하게 재구성



스포라적인 삶을 매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1944년 일본대학 예술학부 작곡과를 수료한 정추는 1946년 월북해 평양음대 교수로 재직했고, 1952년 북한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돼 차이콥스키가 설립에 큰 역할을 한 국립모스크바음악원에서 수학



했다. 이후 1957년 모스크바에서 북한 유학생들이 전개한 ‘김일성 우상화 반대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1958년에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망명했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는 정추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켰고, 남한에서는 오랫동안 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 정추의 망명으로 북한 영화의 대부 정준채는 1960년대 초반 북한에서 숙청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마티에 정착한 지 3년 만인 1961년 4월, 보스토크 1호에 몸을 싣고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한 ‘유리 가가린 패자 축하 공연’에서 정추는 자

작곡 ‘땃목의 노래’를 피아노로 연주했고, 이 장면은 소연방 전역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다. 이는 고려인 사회의 자존심을 한껏 드높인 사건이었다. 만약 그가 모스크바 유학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면 김일성을 위한 작품을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을 것이고, 그는 그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정추는 1959년부터 1968년까지 10년 동안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 가요채록’ 작업을 수행했다. 당시의 일화는 ‘녹음기를 메고서 조선민요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수기로 1968년 6월 14일자 ‘레닌기치’에 실렸다. 1000여곡이 넘는 정추의 민요 채록 작업이 없었다면 150년 역사를 가진 고려인들의 가요는 아마 유실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의 민요 채록 작업은 노래의 원초적인 감수성을 상호 확인하는 일종의 집단제의로 해석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추의 채록 작업은 창작활동의 연장선으로 이해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반세기 동안 정추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저자가 에세이 형식으로 쓴 프롤로그는 정추와의 극적인 상봉에서 타계에 이르는 시간의 흐름을 촘촘하게 재구성하고 있으며, 정추의 친형인 북한의 영화감독 정준채(1917~1980)의 서신을 통해 1950년대 북한 예술계의 동향과 두 형제의 예술을 향한 여정을 마치 다큐멘타리를 보듯 긴장감 있게 진술하고

있다.

또 1957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6차 세계청년 학생축전’을 계기로 소련에서 한민족음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정추는 전남 나주 출신의 월북 판소리 명인 정남희(1905~1984)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모스크바 방송에 출연해 ‘심청전’을 소개하고 있다. 정추의 첫 교향곡 ‘조선적 주제에 의한 교향조곡’(1956) 총보가 모스크바음악원을 졸업한 1958년, 모스크바국립음악출판사에서 출간했다는 사실은 그의 음악적 재능이 당대 러시아의 대가들과 견줄만한 것이었음을 입증해 준다.

여기다 정추의 모스크바음악원 졸업작품 발표회 평가표와 성적표, 1958년 소련 망명을 결심한 정추가 당시 흐루쇼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에게 보낸 편지와 소련 최고소비에트 의장 보로실로프에게 보낸 편지, 북조선노동당에 보낸 공개서한 등을 각각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외에 정추 사후인 2015년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방문한 저자는 쿠르만자키 명칭 알마티국립음악원 도서관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발레 심포니’ 악보를 발굴한 점을 성과로 평가하며, 1948년 평양에서 만나 친형제처럼 교류한 광주 출신의 음악가 정율성(1914~1976)의 서신(4통)을 통해 두 사람의 음악에 대한 열정도 확인할 수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그라시아스 합창단, 광주서 울리는 성탄 하모니

그라시아스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오는 25일 오후 3시30분과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크리스마스에 담긴 의미를 각 막마다 오페라, 뮤지컬, 합창으로 표현한다.

1막은 2000여년 전 로마의 지배 아래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오페라 형식으로 선보인다.

2막은 오 헨리의 명작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을 뮤지컬로 재구성해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풀어내고, 3막은 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크리스마스 명곡들을 들려준다.

그라시아스합창단 관계자는 “크리스마스는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힘을 지니고 있다. 많은 분들이 공연을 통해 마음 속에 기쁨과 위로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대에 서는 그라시아스합창단은 지난 2014년 스위스 몽트뢰 국제합창제 혼성부문 1위 및 최우수 관객상을 수상하고 2015년 독일 마르크트오버

도르프 국제합창제 최고상(혼성부문 1등상) 및 특별상을 수상했다. 클래식과 오페라, 뮤지컬, 팝, 가곡의 장르를 넘나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을 청중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2025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는 안산(11. 21~23·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광주(11. 25·광주예술의전당), 진주(11. 30·경남문화예술회관), 서울(12. 1~4·여의도 KBS홀), 부산(12. 5~6·BEXCO 오디토리움), 강릉(12. 8·강릉아트센터), 대구(12. 13~14·영남대 천마아트센

터), 전주(12. 17·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울산(12. 21·울산문화예술회관), 창원(2026. 1. 17~18·315아트홀) 등에서 진행된다.

한편,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해 온 대한장애인협회와 사회 취약계층과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공동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라시아스합창단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복 80년’ 광주 인물들 발굴·공유 27일 한국학호남진흥원 학술대회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주를 빛낸 역사 인물들의 삶과 정신을 재조명하고 선양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오는 27일 오후 1시 광주시청 2층 무등홀에서 ‘이름 없는 별들, 다시 빛나다’라는 주제로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정선 교수(조선대)가 ‘광주다운 역사 인물 선양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며, 노성태 원장(남도역사연구원)이 ‘양진여 의병장의 생애와 의병 활동’을, 안종철 소장(현대사회연구소)이 ‘최종섭의 항일 독립운동’을, 신주백 교수(연세대 국학연구원)가 ‘광주·전남의 근현대사와 정광호’를 각각 발표한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다운 역사 인물 발굴 사업’을 추진해 광주·전남 지역 역사 인물 4000여명을 발굴했다. 발굴 대상은 의병, 독립, 교육, 문화 등 13개 분야에 걸쳐 있으며, 독립운동가인 최한영, 이경재 선생의 평전을 간행해 학계와 일반에 보급하는 등 학술적인 성과를 거뒀다.

홍영기 원장은 “시민과 학생, 연구단체가 함께 호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공유하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학호남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hik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03-9622.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30년 넘게 ‘배꽃’ 조망…고요한 풍경 속 ‘정화’

고희자 제10회 개인전 26일까지 무등갤러리서 “그림들 모두 ‘흰 곳’으로 초점화” 50여점 출품

군데 군데 백색이 투영됐다. 작품에서 많이 발견되지만 배꽃 작업만 30년이 됐다고 하니 그는 천상 백색을 떠나서는 작업을 생각 못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그가 흰색만을 편식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채로운 색상을 추구하지만 화폭에서 흰색이 눈에 띄거나 한다는 의미다. 그의 화폭 속 백색은 어느 지점을 향해 집중되거나 화면 전체로 확장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도록 암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짧은 평을 써준 평론가의 그의 작품에 대한 제목이 ‘백색의 시선’이어서 더욱더 지배색이 백색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다.

주인공은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창작활동을 펼치는 고희자 작가(송원대 미술예술과)로,



LH휴광갤러리에서 제9회 전시를 가진 뒤 4년만에 열번째 개인전을 20일 개막. 오는 26일까지 광주 무등갤러리에서 ‘백색의 시선, 자연의 호흡’이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출품작은 2005년 이후 작업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작과 신작 등이 망라된 가운데 ‘독일 백조의 성’ 및 ‘베네치아’, ‘나주 금천의 배꽃’, ‘석류’, 자신의 딸을 모델로 한 ‘인물’ 등 50여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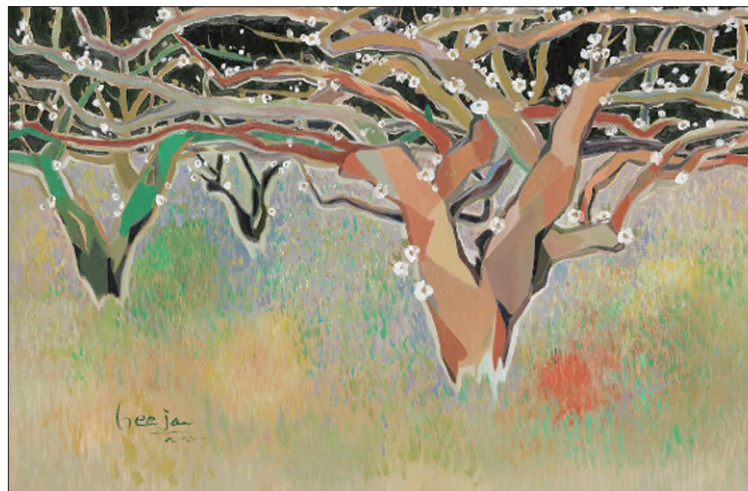
특히 이번 전시는 자신의 개인전 중 가장 규모가

큰 전시이자 앞으로의 창작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지독히 많은 현장을 누비며 스케치를 다녀오곤 하는 작가는 한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전국을 돌며 현장 스케치를 추구한다. 나주 금천의 배밭 같은 곳은 작가로서 그의 근성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다. 30년 동안 변함없이 찾고 있기 때문이다.

배꽃 발하면 흰 꽃만 생각하게 하는 데 배꽃 아래 푸르른 초목들이 우거지는 것까지 놓치지 않고 풍경을 담아왔고, 그것을 화폭에 투영해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작가는 “나주 배꽃을 30년 넘게 다리고 있다. 현장에서 본 배꽃은 장엄하기까지 하다. 배꽃 밑 일대는 흰 꽃들 말고도 그 아래로 녹색이 덮는다”고 들려줬다.

또 작가는 도록 단상을 통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내 영혼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음을 느낀다. 오랜 시간 내면에 가라앉아 있던 슬픔과 기쁨이 고요한 풍경 앞에서 감정들은 나도 모르게 정화돼 간다. 자연에서 얻은 영감은 지난 세월의 눈물방



‘나주 금천의 배꽃A’

울이자 새로운 희망의 조각”이라고 밝혔다

작가의 작품은 군중의 고독 속에서 방향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힐링과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보기 드문 마력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마음의 고향을 상실한 현대인들에게 영혼을 정화시키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작가만의 처절한 고뇌의 소산에서 비롯

된 것으로 풀이된다.

안석교 명예교수(한양대·전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림들이 모두 ‘흰 곳’으로 초점화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많이 놀랐다. 음성적이든, 양성적이든 그 작가의 그림들은 백색의 초점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평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